

한국 박물관교육의 시원과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교육 방법론 연구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 I. 한국 박물관교육의 시원과 질적 변화
- II. 박물관교육 성과 분석과 평가 방법론
- III. 질적 성장을 위한 교수 - 학습 설계 모형
- IV.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교육의 과제와 정향

한국 박물관교육의 시원과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교육 방법론 연구

I. 한국 박물관교육의 시원과 질적 변화

“박물관은 평생학습과 사회교육, 정보교류, 위락향유를 위해서 유무형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유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전시,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¹⁾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서,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에 의해서, 박물관을 중심으로 또는 박물관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포괄한다.²⁾ 오늘날 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의 선구자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비영리의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³⁾ 기관으로서 공동체 연계망 community network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정규의 평생학습과 비영리의 사회교육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핵심lifelong education core이자 문화교류의 중심cultural communication center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에 관한 첫 기록은 1876년 4월 일본의 신식제도와 근대시설, 신문물 등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된 제1차 수신사⁴⁾ 김기수金綺秀가 사행使行을

1) 최종호, 「박물관 교육과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 지침(2)』(2004), p.127.

2) 최종호,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철학」, 『한국박물관교육학』(2010), p.29.

3) 교육정보위락; 최종호, 「한국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2003), p.30.

기록한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丙子(1876년) 5월 壬寅(12일)과 『일동기유日東記游』 제4권의 『부행중문견별단附行中聞見別單』⁵⁾ 14칙의 제12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기수의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에 丙子 5월 壬寅 “오시(11~13시)를 지나 원료관遠遼館 연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⁶⁾가 남은 시간에 초대하여 박물관博物館을 구경하였다(過午罷宴而歸, 歸路宮本小一, 款余賞博物館)”⁷⁾는 기록에서 박물관이란 단어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일동기유日東記游』 제4권의 「부행중문견별단附行中聞見別單」 14칙의 제12칙에 “에도(江戸 えど, 1868부터 도쿄)는 사방 10~20리 밖에도 여염과 시사市肆가 뻗뻗이 들어차 있어 한 곳에도 공한지空間地가 없었습니다. 박물관博物館⁸⁾ · 천초사淺草寺 · 은이殷彝 · 주정周鼎 · 진전秦甄 · 한와漢瓦 · 진금珍禽 · 괴수怪獸 · 기화奇花 · 이초異草 등 또한 없는 물건이 없으므로, 그 은부함은 비할 데가 없고 이르겠으나, 또한 때때로 떠벌려 자랑하는 태도도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기이를 자랑하는 여습餘習이었습니다.”⁹⁾는 대목에서 박물관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이란 용어는 1883년 11월 10일 통리기무아문 박문국에서 발행한 『한성순보漢城旬報』 제2호 20면의 유럽 기사에 “본초원本草園, 동물원動物園, 박물관博物館, 조락원調樂園, 문서고文書庫”등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유럽 기사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¹⁰⁾의 문하생 이노우에井上角五郎가 한성순보 발행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문물을 전파 · 교육하는 측면에서 본초원, 동물원, 박 물관, 조락원, 문서고 등을 소개한 것으로 추정된다.¹¹⁾

박물관 건립에 대한 최초의 정책제안은 갑신정변(1884년)에 실패하여 망명한 박영효가 1888

- 4) 『일동기유日東記游』 제1권의 「차견差遣」, 「수솔隨幸」, 「별리別離」, 「혈숙歎宿」, 제4권의 「환조還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제1차 수신사는 1876년 2월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條約에 의거, 동년 음력 2월 22일 고종의 칙명으로 수신정사 김기수와 별견 당상역관 2명, 당하역관 2명, 군관 2명, 서기와 화원 각 1명 등 총원 73명으로 사행단을 구성하여, 4월 4일 오후 고종께 하직인사를 올리고, 29일 부산에서 일본 화륜선(항륜환)을 타고 일본으로 출발하여 5월 7일 에도(도쿄)에 도착하여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신식제도와 근대시설, 신문물 등을 시찰한 후 27일 귀로에 올라 운 5월 7일에 부산에 도착하여 6월 1일 신시(4시전후)에 고종께 복명하였다.
- 5) 별단別單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 첨부하는 문서나 인명부人名簿.
- 6)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은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도 조약 조인차 일본 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의 수행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후 이사관理事官으로서 조약의 비준서를 가지고 또 입국하여 조약에 따르는 통상 세칙을 협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수신사기록修信使記錄』 전초(1971), p.121.
- 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1971), p.109에 박물관博物館之觀으로 기록되어 있다.
- 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1971), p.109.
- 9)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33&gunchald=&NodeId=&setid=1277693 (검색일 2017.9.30.)
- 10)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34년에 태어났고, 1854년 나가사키에 가서 네덜란드어를 수학하면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후 1858년 에도(도쿄의 옛 지명)에서 네덜란드어학교蘭學塾를 개설하였고, 1860년부터 막부幕府의 건외사절建外使節로 3회에 걸쳐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많은 서양 서적을 가지고 돌아와 서양사정을 알리고 근대화에 앞장섰다. 메이지유신 후 신정부의 초빙을 사양하고 교육과 언론활동에만 전념하였다. 1873년 메이로쿠사明六社를 창설한 후로는 동인으로 활약하면서 실학을 장려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주장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882년 『시사신보』를 창간하였고, 만년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 11) 최중호, 「한국 박물관 100년과 박물관 경쟁력 강화 - 근대이전의 박물관 단계, 여명기, 혼란기의 박물관 발달사, 박물관 경쟁력-」, 『박물관학보』 14, 15(2008), p.130.

년초에 일본에 있으면서 고종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상소한 13만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건백서建白書에 포함되어 있다. 박영효가 상소한 건백서의 <6. 백성들에게 재주와 덕행, 문화와 기예를 가르쳐서 근본을 다스리십시오>에 “신라에서는 경주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건물이 웅장·화려하였으며, 페르시아·인도·漢·唐·일본 및 우리나라의 古今奇寶를 진열하여 진실로 國中의 美觀이 된 바가 있습니다. 壬辰年에 이르러 드디어는 잿더미가 되어 전혀 흔적이 없게 되었습니다.”¹²⁾고 진술한 후,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술문화 진흥을 위해서 “박물관을 건립하여 인민의 견식을 넓히는 일입니다.”¹³⁾라고 박물관 건립, 교육 및 학술진흥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¹⁴⁾

우리나라에 서구의 근대사상이 반영된 박물관 개념을 처음으로 전파한 것은 유길준¹⁵⁾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이다. 유길준이 구미歐美 지역의 근대박물관을 견학하고 1885년 귀국 후 집필하여 1895년 국한문혼용체로 일본 도쿄에서 간행된 『서유견문』 제17편 ‘박물관과 동·식물원’항목에, “박물관은 세계 각국 고급 물산들을 크거나 작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지 않고 일제히 거둬 모아, 사람들의 견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¹⁶⁾고 박물관의 개념을 기능과 역할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1908년 9월 대한제국은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을 설치하였다. “순종 황제는 1909년 11월 1일, 창경궁에서 박물관과 함께 문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을 목요일에 관람하였고, 그 외의 요일은 국민들의 오락과 지식 개발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개방하도록 하였다.”¹⁷⁾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은 초창기에 “황실의 오락을 겸하고, 공중의 관람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었으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지식개발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¹⁸⁾

12) 김갑천 역, 「박영효의 建白書 -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 상소문-」, 『한국정치연구』 2(1990), p.282.

13) 김갑천 역, 위의 글(1990), p.284.

14) 최중호, 「개화기부터 1910년까지 뮤지엄과 엑스포 정책 연구」, 『박물관학보』 22(2012), p.12.

15) 유길준은 1870년(고종 7) 박규수의 권유로 1881년 조선조사일본사절단의 조사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1882년 여름 후쿠자와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유정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고,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민영익의 권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 1월에 귀국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주사에 임명되어 한성판윤 박영효가 계획한 『한성순보』 발간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민씨척족 세력의 견제로 신문 발간사업이 여의치 않아 주사직을 사임하였다. 1883년 7월 견미보빙사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시의 피바디박물관장인 모스Morse, E.S.의 개인지도를 받았다. 1884년 가을 담머[대학예비]고등학교Governor Dummer Academy에서 수학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여파로 고종은 개화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수구파였던 민씨척족이 정권을 잡으면서 유길준에게 오던 유학비용도 끊어졌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유길준은 미국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바로 조선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유럽을 돌아 견문을 넓히고 동남아시아, 일본을 거쳐 마침내 1885년 12월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주모자인 김옥균·박영효 등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여 개화파의 일당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 한규설의 도움으로 극형을 면하고 1892년까지 그의 집과 취운정에서 연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학생활과 해외탐방기, 경세관 등을 집필하여 1895년 도쿄 교문사에서 『서유견문』을 근대서적 양식으로 출판하였다.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된 이 책에서 서양의 근대 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개화, 즉 ‘실상개화實效開化’를 주장하였다.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 후 이 사건의 뒷수습을 위해 일본 공사 이노우에와 접촉하였다. 내부대신이 되어 단발령을 강행하여 보수적인 유럽과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친러내각이 수립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진회의 한일합방론에 정면으로 반대했으며, 1910년 이후 나라를 잃은 자괴감에 침저하였고, 일본에서 주는 남작지위를 끝내 받지 않았고 1914년 9월 서거하였다.

16)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 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서울: 서해문집), p.471.

17) 최광식, 「한국 박물관 100년의 역사와 의미」, 『한국박물관 100년사』(2009), pp11-12.

제실박물관은 사람들의 “전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박물관을 설치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지식개발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박물관교육은 전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한 계몽 즉 사회교육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지식개발을 위한 공개 즉 평생학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이후로 조선총독부는 박물관이라는 문화기구를 통하여 ‘실물’을 적극 활용한 ‘대국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주목적은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과 정체성론停滯性論의 주입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25년 5월 당시 일본국왕大正의 성혼 25주년 기념식전에서 사회교육장려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에 17만원을 지원하여 과학박물관 건립을 착수하여 1927년 4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를 하였다. 1915년 12월 개관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반도 고래의 제도, 종교, 미술, 공예, 기타 역사의 미증참고微證參考가 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반도민족의 근원을 밝히고 그 민족성을 규명하며, 특히 이 땅에서 발달했던 공예미술의 특질을 조사하여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한 예술품을 진열하여 새로운 공예미술의 발흥을 도우고자 함이다 … 국민의 자각심을 유도함에 노력하고자 한다.”¹⁹⁾고 개관 취지를 밝혔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던 일선동조론, 일선동원론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조선총독부박물관은 그러한 동화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식민주의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박물관협회에서는 1933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전국박물관주간으로 정하였으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은 대국민교육對國民教育에 있었다. “박물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살아있는 실물교육을 제시하고 지금부터의 살아있는 교육이란 문자나 말에 의한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흑판이나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아가 박물관에 의한 사상事象의 현실을 직접 파악 체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하여 자연과학도 미술도 문학도 국민정신도 과학박물관이나, 미술관, 보물관, 역사관의 탐구에 의하여 철저하게 자기지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²⁰⁾

大正12년(1924년) 조선총독부는 제국지방행정학회帝國地方行政學會를 개최하고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민중지교화民衆之教化』를 발간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조선총독부가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여 박물관을 통해 우리 유물의 합법적 수탈을 가능케 하고, 넓게는 일선동조론을 강화하여 노예의 정신을 조선인에게 주입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방편으로

18) 최광식, 위의 글(2009), p.12.

19) 조선총독부박물관, 1926년 4월, 『博物館報』1, 3면.

20) 『ドルメン』1933년 12월호, p.59-60,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서울: 서경문화사, 1999), p.121에서 재인용.

박물관교육을 강조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박물관들은 실질적 의미의 박물관교육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하달식·주입식 ‘국민교육’이 박물관을 기제로 이용하여 수행된 것이다.²¹⁾

일제강점 이후 조선총독부의 박물관교육은 내선일체를 위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교육이 주된 것이었고, “평양부립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사진, 환등기 등을 준비하여 부내의 각 학교와 연계하여 역사 특강을 개설하고 학교 외 관광단체를 대상으로 조선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정기 강연 및 강습회 등도 개최하고 있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3년의 전국박물관주간 취지를 살펴보면, 흑판이나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아가 박물관에 의한 사상事象의 현실을 직접 파악 체득할 수 있도록 실물을 통한 직관 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이 오늘날의 박물관교육 개념이나 교수-학습 모형과 다를 바 없다.

광복 이후에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 황수영 박물관장이 「조선탐파에 관하여」, 민천식 박물관감이 「채색토기에 관하여」등을 발표했고, 박물관 직원들은 이를 경청하였으며 이러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은 1949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미술강좌로까지 연결된다.²³⁾ 1950년 6·25전쟁의 서울 수복직후 남산의 국립민족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을 개설하여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²⁴⁾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어린이박물관학교가 1955년까지 지속된 것과 비교해 1954년에 경주에서 시작된 박물관학교는 2010년 현재까지 지속된다. “1945년 당시 진흥섭 경주분관장과 윤경렬 등은 ‘정신이 때 묻지 않고 생활이 부담 없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재를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학교를 박물관에서 시작했다. … 1962년에 ‘경주어린이향토학교’, ‘박물관학교’등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진행되었다. 어린이박물관학교의 수업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강의와 전시실 보기, 만들기(불상, 토우, 사자 등), 그리고 경주지역 고적답사로 이루어졌다.”²⁵⁾ 광복 이후 1970년까지 국립박물관의 박물관교육은 연구해서 문화재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교수 중심의 사회교육에 목표를 두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 당시 문교부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체계에서 박물관교육은 사회교육의 일부로서 박물관에서 실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지만 한편으로 실물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보다

21) 전경수, 「한국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인류학의 회고와 전망』(1998), p.676.

22)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울: 서경문화사, 2001), p.174.

23) 국성하, 「한국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 『한국박물관교육학』(2004), p.78.

24) 신찬균, 「박물관과 새 문화정책」, 『박물관신문』119(1981).

25) 국성하, 앞의 글(2004), pp78-79.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광복이후 1970년까지 한국의 박물관교육은 전시실의 실물을 통한 탐구학습보다 문화재현장 중심의 문화재해석 교수에 관심을 기울였다. 박물관의 주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유산보존과 평생교육²⁶⁾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1951년 7월 「런던회의」에서 ‘사회교육’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62년 「미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을 ‘항구적 비영리단체이며 교육과 문화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했다. 1974년 덴마크에서 개최한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명시하였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UNESCO에 의하여 1965년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평생교육 개념도 UNESCO 한국위원회의 선구적 역할로 보급, 발전되어질 수 있었다.”²⁷⁾

1970년 창간된 국립박물관의 『박물관 뉴스』를 보면 「국립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하나」에서 “국민의 사회교육과 학문,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학술, 강연, 교양강좌 등을 개최한다.”고 알렸다.²⁸⁾ 1971년부터 국립박물관은 매주 토요일에 박물관 직원들을 위한 고고학, 한국미술사, 박물관학에 관한 강좌를 실시하였는데, 1972년부터 박물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였다. 1972년 8월 25일 경복궁 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의 사회교육과 학문,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학술, 강연, 교양강좌 등을 개최한다.”는 취지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교육이 박물관직원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박물관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1974년 9월 한국박물관회(1981년 3월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로 변경) 소속으로 신병찬 선생 등이 박물관교육을 담당하면서 한국박물관회의 박물관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부터 한국박물관회의 박물관 특별강좌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연구, 수집,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고 학예직의 자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한국박물관회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교육을 주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의 박물관교육은 학습보다 교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었고, 전시연계교육 또는 전시와 연계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관리 함에 있어서 전수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기주도학습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박물관회가 주관한 특별강좌 박물관대학이 박물관 콘텐츠

26) 1970년 ‘세계 교육의 해’에 평생교육을 하나의 지도 이념으로, 유네스코에서 교육사업의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최종호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을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과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을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7) 서명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0.

28) 국성하, 앞의 글(2004), p.80-81, 재인용.

전수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대학의 교과 내용은 4개 분야(고고학, 미술사, 인류학, 박물관학) 50강좌로 구성되었고, 교과 수업은 실물을 통한 직관교육보다 교재를 통한 문화재 이해와 감상을 위한 박물관 콘텐츠 전수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정규교육과 다를 바 없었다.

「박물관의 보급교육활동에 대하여」라는 이난영 선생(박물관학 개척자)의 글에서 박물관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박물관 내부에서 섭외교육과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간접적으로 1981년 섭외교육과 창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⁹⁾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 제4장 제23조 1항에 “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라고 명기하였고, 1984년 제정된 『박물관법』 제2조에 “박물관이 일반 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해야 함”을 명문화시켰다.³⁰⁾ 또한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일 박물관학교(1984년부터 어린이박물관 현장학습)를 개설하였고, 1984년부터 청소년문화강좌를 개설하였다. 1985년에는 세계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특별 기획하여 1교시에는 문화재를 통해 본 문화사적 정통성이라는 강의를 들었으며, 2교시에는 문화영화관람, 3교시에는 전시유물을 관람하였다.³¹⁾ 이러한 사례를 보았듯이 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교육은 실물을 통한 직관교육보다 강의와 시청각 교육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1986년 8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청(구 조선총독부)을 개수하여 이전하면서, 교육을 전담하는 문화교육과를 설치하였고 사회교육관을 신축하였다.³²⁾ 국립중앙박물관은 사회교육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박물관 특별강좌, 청소년 한국전통문화 강좌, 교원 하계방학을 이용한 교육강좌, 박물관 학예요원 양성을 위한 특별강좌, 청소년을 위한 박물관학교 등을 개설하였다. 1988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해 오던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성인을 위한 교육, 노인을 위한 교육, 정기교양강좌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관점보다 사회교육 관점에서 소장품 기반의 실물직관교육보다 문화콘텐츠 전수교육에 치중된 주입식 강의와 문화영화 상영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보다 교수자 중심의 지식·정보 전달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1년 『박물관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시기부터 국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에서 박물관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9) 국성하, 위의 글(2004), p.82.

30) 국성하, 위의 글(2004), p.82.

31) 국성하, 위의 글(2004), p.83.

3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서울: 계문사, 2006), p.257.

1995년 5월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박물관학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과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hands on 어린이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94년 한국민속촌박물관 최종호 관장이 민속박물관 건립·운동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유·무형문화유산의 전시, 교육, 해석을 위한 전통문화콘텐츠와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996년 12월 16일 민속관을 개관하여 오늘날까지 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연계교육 프로그램이 매력을 끌고 있다. 1997년 민속관의 전통문화콘텐츠 기반의 초등학교 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 『한국의 세시풍속』을 권태훈 학예사와 공동으로 집필하여 1998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시풍속 교육프로그램 안내서를 출간하였다.³³⁾ 이를 바탕으로 발간한 『오늘은 민속관 가는 날』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교안이자 현장학습지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박물관의 박물관교육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2000년 7월 국립민속박물관의 섭외교육과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담당으로 박물관학을 전공한 염소연 선생이 임시직으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급 교육담당으로 박물관교육학을 전공한 김이삭 선생을 채용하여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2006년 4월이후 문화체험관)에 개관요원으로 배치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교육담당 업무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다. 2002년 8월 독립기념관 이문원 관장이 『월간 너울』 포럼 중계에서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기능」에 관하여 “박물관은 교육·학술·문화·산업·생활 전반에 걸쳐 대중에게 교육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이요 공간이다. … 교육학과 관련지어 시급히 검토해야 할 분야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종사해야 할 박물관교육전문가(Educator) 양성이 다.”³⁴⁾고 하였다. 이 무렵부터 국·공립박물관에서 박물관교육 전문인력 채용에도 관심이 높아져 2003년 독립기념관(이문원 관장, 한국박물관교육학회 공동회장)에서 박물관교육 전공자들(이은미, 국성하)을 에듀케이터로 채용하였고, 국·공립박물관에서도 에듀케이터 채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박물관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³⁵⁾의 목표를 설정하고,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자타에게 필요한 문화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성원 사이의 상호발전에 이바지한다. 학습은 인간사회의 전통을 계승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배워야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학자와 교육학자들은 인간을 호모 에루디티오

33) 최종호, 『오늘은 민속관 가는 날』(서울: 재능출판사, 1998).

34) 이문원, 「포럼 중계 :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기능」, 『월간 너울』130(2002).

http://kcti.re.kr/web_main.dnmw?method=view&contentSeq=2561 (검색일 2017.9.30.)

35) 교육(education)은 학습(learning)과 전수(teaching)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homo eruditio라고 지칭한다.³⁶⁾ 박물관교육은 체험과 참여에 초점을 맞춰서 역사인식, 문화이해, 예술감상, 현상발견, 원리탐구, 상호작용 등의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조사연구와 정보교류, 위락향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설립취지에 합당한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앞서 가는 박물관에서 “박물관교육은 유물과 수집품 전시에서 탈피하여 이들 유물과 수집품으로부터 가치 있는 가르침을 이끌어내고 배우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³⁷⁾ 있기 때문에 금세기의 박물관교육은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위락을 향유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박물관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 분야가 무엇이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해당 부분의 역사long term history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변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지혜를 배워 현재를 바꾸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바꾸어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³⁸⁾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사회교육 측면에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자 중심으로 전수하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 지역의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학습 측면에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학습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³⁹⁾ 오늘날 선진 박물관에서는 분과학문별 또는 다학문적 접근과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또는 표적 참가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현실공간에서 또는 가상현실공간에서 교육효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교육 전공자들은 박물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하고 짜임새 있는 맞춤형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비정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박물관교육은 오감을 통한 체험학습과 전시를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직관교육, 연령과 성별, 접근성, 지적수준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비정규 교육,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학습self-study, 평생 동안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사회를 계도하는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등의 목적과 특성을 충족시켜 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학적인 관점에서

36) 최중호, 「평생교육과 박물관의 역할」, 『2004년도 국립박물관 사회교육 담당직원 워크숍』(2004), p.6.

37) Hooper-Greenhill, Eileen, *Museums and Their Visitors*, London (Routledge, 2004), p.230.

38) 김권구,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의 과제」, 『박물관과 박물관교육』(2003), p.20.

39) 대영박물관, 런던박물관,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박물관), 폴 게티 인스티튜션(박물관) 등이 대표적 사례임.

<http://www.getty.edu/education/index.html> (검색일 2017.9.30.)

<http://www.museumoflondon.org.uk/MOLsite/learning> (검색일 2017.9.30.)

<http://www.smithsonianeducation.org> (검색일 2017.9.30.)

<http://www.thebritishmuseum.ac.uk/education/index.html> (검색일 2017.9.30.)

박물관교육은 실물을 통한 직관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상현실박물관이 발달하더라도 실물을 직접 보고 경우에 따라 직접 만져 볼 수 있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이용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다. 구미 지역의 선진 박물관에서는 학교, 지역사회, 생활과 연계된 박물관 전시와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옥내박물관과 야외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공간에서도 인터넷 웹(Web)과 왓(Wab)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 또는 접속하여 평생학습과 사회교육, 정보교류, 위락향유를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박물관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II. 박물관교육 성과 분석과 평가 방법론

박물관교육 성과 분석은 박물관교육 목표의 준거지향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교육목표를 학습자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교육 준거지향은 내용지향, 목표지향, 영역지향으로 구분될 수 있고, 박물관교육의 성과분석은 박물관의 설립취지와 박물관교육의 목표에 따라 부합성과 지향성의 측정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는 단계별로 선행평가(진단평가), 형성평가(과정평가), 총괄평가(종합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박물관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역사 이해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학생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통하여 깨닫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역사 교육에서의 박물관교육은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알고, 기능을 배우는 것과 문화재와 관련된 시대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박물관교육은 학생들에게 딱딱한 역사수업의 하나로 인식되어 흥미를 끌 수 없었고, 문화재에 대한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없었다.⁴⁰⁾

사회과 학습에서 문화재를 활용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찾아본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아동으로 하여금 탐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는 학습과정에서 탐구의 자료 역할을 한다. 아동들은 문화재라는 역사적 자료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탐구의 과정을 거

40) 김한중, 「문화재교육의 개념 및 성격」, 『초·중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06), pp.5-6.

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알고자 하는가 라는 문제는 기본적 탐구 능력 또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능력은 역사학습에서 습득 가능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유물, 유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 형성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역사학자의 작업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재는 초등학생 및 학습부진아slow learner에게 효과적인 역사 학습 자료이다. Piaget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지발달 수준은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때의 사고는 지각에만 지배되지 않는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문화재를 통하여 과거에 대한 상상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실감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사의 강의나 이야기 narrative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역사이해를 돕기가 어렵다. 과거의 일에 대해 흥미를 갖고 현재에서의 의미를 찾으려면, 과거의 사건을 생생하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재의 활용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학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 대상에 대해 아동이 흥미를 가져야 한다. 문화재 학습도 아동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조작하는 등의 체험적인 학습 활동을 좋아하며 관심을 가진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행동이나 체험을 통해서 보다 실감을 느끼고 학습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화재를 접하면서 자신의 고장, 국가, 민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키우게 된다. 일본의 역사교육학사 사토우佐藤照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각각의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선조들의 문화 창조의 소산으로서, 지역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현대에 있어서 민족의 자부심의 근원이며, 자연, 사회 환경과 함께 문화 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생활환경이다.”라고 하였다.

박물관·미술관 관람과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문화·여가생활의 일환’이라는 인식은 뒤마즈디에가 언급했듯이 “의무에서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이익과 관계없이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⁴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문화재를 나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의 생활모습을 구성하여 당시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박물관교육을 통해 단순히 예술분야에 국한되거나 유물 자체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사회 등 여러 측면과 연관시켜 당대의 문화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41) 박선기, 「여가의 개념」, 『여가학 총론』(2008), p.29 재인용.

표 1. 국가별 문화재교육의 주요 특징⁴²⁾

국가별	문화재교육의 주요 특징
중국 ⁴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교육이 중국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추진 문화유산교육이 애국주의교육을 위한 중요한 수단 청소년과 대중을 위한 문화유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차원의 문화재 학습 교재 개발·발간 지역의 생활 문화재 중심의 학습 문화재 전문가의 학교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와 사회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교육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기관의 교육장학 탐구와 체험 위주의 문화재교육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인적 자원의 훈련 및 배치 다양한 형태의 안내 및 학습 자료 개발·보급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행사와 전통놀이를 통한 역사 학습 문화재 전문가에 의한 박물관 수업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수업에 문화재 활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날' 운영 유적지 봉사대 조직 운영 학교교육과정에 '문화재 워크숍' 참가를 필수로 지정

〈표 1〉의 국가별 문화재교육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문화재교육은 첫째, 효과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사회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요구된다. ... 둘째, 문화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셋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 넷째, 학생들이 문화재를 직접 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⁴⁴⁾는 김한중 교수의 주장에 공감한다.

문화재교육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재를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문화재교육의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의 체험과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⁴⁵⁾ 또한 누리유산의 측면에서 문화재교육의 필요성과 누리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인류의 창조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재교육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다문화

42) 김한중, 앞의 글(2006), p.42 참조.

43) 정준호, 「중국의 문화유산교육」, 『한국사 교육과 문화유산』(2011), pp.97-116.

44) 김한중, 앞의 글(2006),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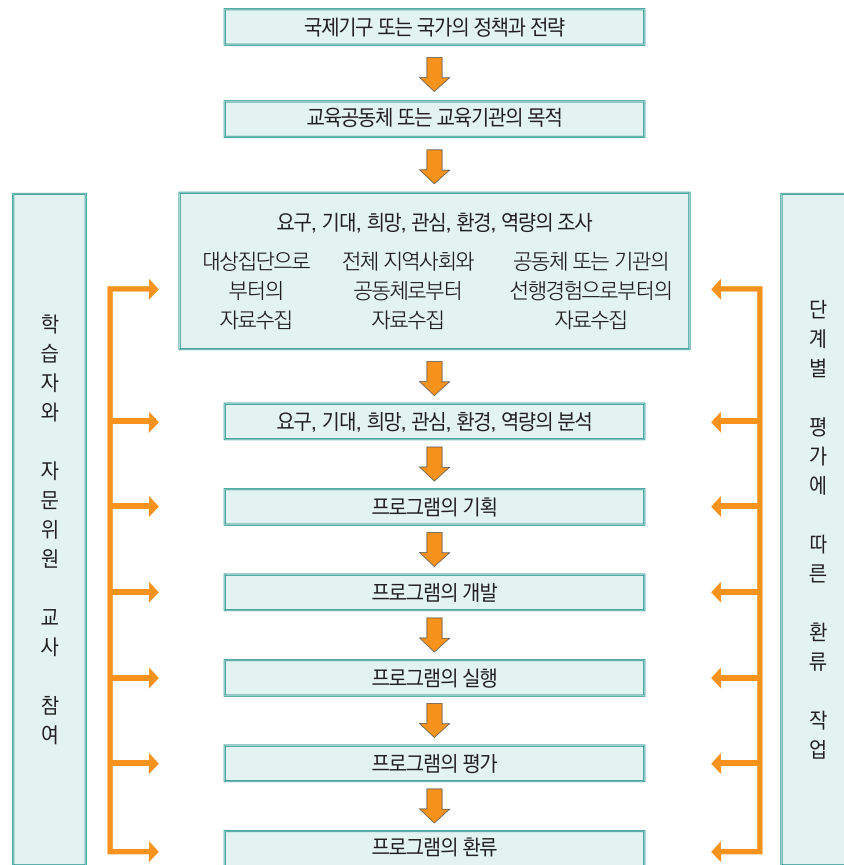
45) 김한중, 위의 글(2006), pp.5-6.

교육과 인류의 창조성을 학습할 수 있는 타문화 교수를 양방향교류를 통해서 조화롭게 교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융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과교육에 있어서의 교수·학습 활동의 여러 가지 요인들, 즉 교수자, 학습자, 교과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교구, 교재, 학습보조자료, 교수매체, 교육장소와 학습환경 등에 따라 교육의 효과와 효율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과거의 박물관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보호활용을 위한 문화다양성 보장과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표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단계별로 평가를 통해서 환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질적 성장을 위한 교수 - 학습 설계 모형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에서 매우 긴요한 것은 첫째, 문화재현장과 박물관 등에서 전시연계교육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 문화재현장과 문화재전수교육관이 비정규 교육장으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는 것이고, 셋째, 유산보존과 문화전수를 위한 비정규 교육장과 평생학습기관에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넷째,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을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의 관련 국제기구와 교육전문기구가 권고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섯째, 박물관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박물관교육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 환류할 수 있도록 교안과 교재, 학습지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섯째, 다목적, 다차원, 다문화 교육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하고, 일곱째, 유비쿼터스 체제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SNS 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박물관교육에 참여하고, 문화재학습을 통해서 문화복지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복을 맘껏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도 1.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⁴⁶⁾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박물관교육과 문화재보호활용을 위한 박물관교육을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통해서 표적 학습자를 위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은 로젠버그 Rosenberg, M.의 ADDIF 교수-학습 설계 모형 즉 분석Analysis, 기획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환류Feedback 과정을 모태로 개발되었다. ADDIF 교수-학습 설계 모형은 ADDIF에 선행(진단), 형성(과정), 총괄(종합)평가Evaluation과정을 삽입하여 설계되었다.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은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요구, 기대, 희망, 관심, 환경, 역량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ADDIE의 분석단계에서 대상 집단이 학습해야 할 교과내용, 즉 지식과 기술,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쌍방향 교류가 필요하다.

46) 참조: ADDIE 교수-학습 설계 모형은 로젠버그Rosenberg, M.의 모형을 모태로 개발되었음을 밝힙니다.

ADDIEF의 기획단계에서 교수-학습 설계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교수-학습의 목표를 교수-학습의 원리에 따라 설정하여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가 끝나면, ADDIEF의 개발단계로 들어가는데, 교수학습설계자는 설계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안, 교재, 학습지, 교구, 학습보조재, 시청각 매체와 콘텐츠웨어, 특히 원격교육방법으로 교과내용을 쌍방향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학예기술적으로 그리고 교육공학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표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선제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환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ADDIEF의 분석과 기획, 개발의 과정은 실행단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과내용을 매개로 교수-학습 환경에서 만나게 된다.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콘텐츠웨어와 시청각 매체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교실일 수도 있고, 문화재 현장일 수도 있고, 스마트 기자재를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스템일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교과내용을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또는 패키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수-학습 진행방식에서 질의-응답, 소규모 인원이 참가하여 쌍방향 교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 수업이 다른 일반적 교수-학습 진행방식보다 효과가 높고, 효용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환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ADDIEF의 평가단계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종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환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최종평가는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는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한다.

ADDIEF의 환류단계는 평가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개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세심한 평가를 기록하고, 이를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학예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ADDIEF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1) 접근성accessibility과 2) 책임감accountability, 3) 지지도advocacy를 높이고, 또한 1) 수월성excellence과 2) 기회균등equity의 원칙⁴⁷⁾을 실천하는 지름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교육 프로그래밍은 외부환경과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서 공동체 성원들의 요구와 기대, 희망을 수렴하여 교육기관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덕·체·영성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통섭과 융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이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단계별 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함으로써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수-학습 설계 모형이다.

오늘날 박물관교육 프로그래밍은 스마트 경영체제를 기반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의 사이버 공간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쌍방향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장교육과 사이버 공간의 문화재 웹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병행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단계별로 평가하여 환류하는 ADDIEF 교수-학습 설계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교육의 과제와 정향

오늘날 박물관은 유산의 보고이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체험의 기쁨과 삶의 지혜, 자연의 영감을 제공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수장관리·연구교육·정보교류·위탁제공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과 연구, 위락을 위해서 유·무형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문화예술정보산업과 자연생태환경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마레스와르 갈라Amareswar Galla 교수의 유·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전과 활용⁴⁸⁾에 대한 다음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도 노벨상 수상자 故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위스와-바라티 대학교Visva-Bharati University를 설립하였다. 위스와-바라티 대학교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는 것을 실감하는 교사들을 위한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에 두 가지 흐름에 영향을 주는 학습

47) 조한희, 「미국박물관협회와 상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학보』6(2003), pp.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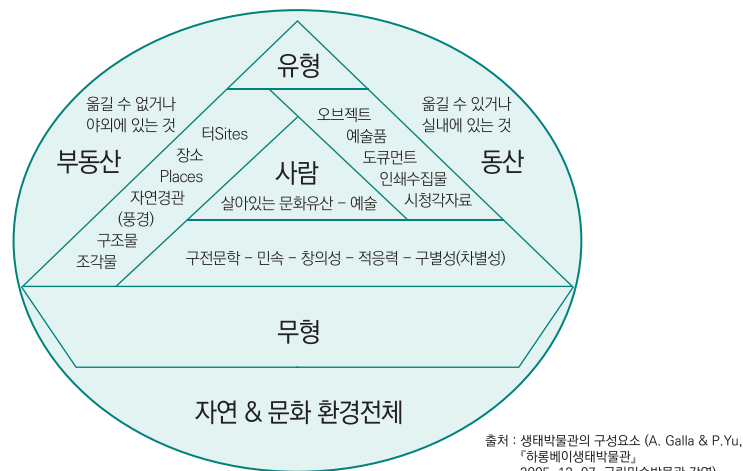
참조: 최중호, 앞의책(2010), p.44에서 재인용.

48) Amareswar Galla, 최중호 역, 『아시아 태평양 관점에서 유산 전문가를 위한 포괄적 역량 배양(Inclusive Capacity Building for Heritage Professionals Perspectives from the Pacific Asia)』, 『사멸위기의 문화유산』(2009), pp.494-505.

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정규교육에 의해 종종 의식이 형태를 구성하지만, 무의식은 경험과 반사에 의한 학습을 통해서 배양된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 집중된 삶의 지혜를 수용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전통을 원천으로 하는 영향의 흐름’에 의해 만족하게 되는 것을 느껴야만 한다.⁴⁹⁾ 세계화의 동질화하려는 힘이 한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당혹하게 하고 있는 후기 식민지의 인도 과제는 ‘공감에 대한 마음 자체의 진실한 자유를 갖도록 하는 영혼의 감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감정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무형유산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차-문화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비판적이다. 총체적 학습의 장소인 위스와-바라티 대학교에서, 타고르는 자연과 문화의 식민지적 이분법을 또한 극복하려는 토착민들의 환경 철학 틀 내에서 유형·무형 유산 양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철학자들처럼 타고르는 유산의 식민지적 건설의 영향을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후기 식민지의 유산 업무의 개발은 협력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상호 연관되고,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총체적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필요하고, 이런 개발의 과장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상황론적 위치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문화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패러다임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유형·무형 자원 양자에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⁵⁰⁾



도 2. 유형·무형자원과 자연환경·문화예술의 통합적 접근⁵¹⁾

49)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시인 학교」, 『계간 위스와 바라티』(Journal of Visva-Bharati)(1981), pp20-32.

50) 아마레스와르 갈라, 「진정성: 다원적 틀에서 유산 다양성을 다시 생각하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Nara) 의정서』(1995), pp.315-322.

51) Galla, A. & Yu, P., 「생태박물관의 구성요소」, 『하롱베이 생태박물관』(2005).

한국 박물관교육의 당면과제는 박물관교육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다양성 이해, 실물을 통한 직관교육과 체험을 통한 평생학습, 유산보존과 문화전수를 위한 비정규교육의 특성을 살려 공동체 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교육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박물관교육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라는 공간이나 장소,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전수와 학습 활동에 필요한 교육매체와 교육방법론 등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첫째, 박물관에서 전시연계 교육활동을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 비정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는 것이고, 셋째, 유산보존과 문화전수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넷째, 박물관교육 전문인력을 국제박물관협의회가 권고하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양성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을 정기적으로 연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섯째, 박물관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박물관교육 학습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섯째, 다목적, 다차원, 다문화 교육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일곱째, 유비쿼터스 체제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SNS를 통해서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호는 "21세기 전반기를 '문화 활용의 시대'로 그리고 21세기 후반기를 '환경 보호의 시대'로 예견하고, 앞으로 문화예술 또는 생태환경 박물관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환경감시기능surveillance of the environment, 둘째, 환경조정기능correlation of the environment, 셋째, 문화전수기능transmission of culture, 넷째, 오락적 기능entertainment"52)에 중점을 두고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교육전문가들은 다종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3)

환경감시기능은 사회의 내부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려 주는 기능이다. 이것은 예견되는 사건이나 위험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순기능도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무질서하게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을 잊고, 환경에 무감각해지는 마취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2)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서울: 나남, 1989), pp.194-195에서 재인용, Wright, Charles, R., 1960,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 POQ, 24, 9.9, pp. 605-620.

53) 최종호,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 『문화예술 교육연구』1(1)(2006), p.53.

환경조정기능은 박물관교육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모형model을 제시하고, 일탈행위를 폭로하여 사회규범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또한 특정 주제나 인물을 부각시켜 관심의 대상agenda setting과 여론의 소재로 삼고, 또 지위를 부여한다. 반면에 여론을 조작하여 개인의 비판능력을 약화시키고, 의사사건pseudo event을 만드는 역기능도 있다.

문화전수기능은 박물관교육을 통해서 사회성원들에게 공통된 경험의 장common ground of experience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증대시키고,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개인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락적 기능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며 사회생활에 활력을 준다. 오락적 기능이 지나치면 다른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비판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교육은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박물관교육은 자연섭리에 순응하며 인간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즐겁게 가르치고 기쁘게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방화glocalization⁵⁴⁾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타문화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해서 자국민과 이주자, 체류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전수 및 환경보호를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공립 박물관은 정부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전파하는 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교육은 문화와 역사를 해석(또는 재해석)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구미 지역의 선진 박물관에서는 인터넷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통신망 등을 이용한 원격 박물관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⁵⁵⁾ "21세기 디지털사회에서 문화교류는 신속하고 거대한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박물관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박물관 정보, 가상전시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며, 상호 자료의 교환검색 등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정보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⁵⁶⁾ 박물관의 인터넷 교육과 관련하여 김은정은 "대중은 어떤 유형의 지식, 지도, 그 밖에 다른 형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어느 곳이나 그것들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적시학습just-in-

54) 세방화glocalization은 지방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문화운동이다.

55) http://www.deutsches-museum.de/e_index.htm (검색일 2017.9.30.)

<http://www.getty.edu/education/index.html> (검색일 2017.9.30.)

<http://www.smithsonianeducation.org> (검색일 2017.9.30.)

<http://www.thebritishmuseum.ac.uk/education/index.html> (검색일 2017.9.30.)

56)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서울: 나무와 숲, 2006), p.55, 김은정, 「21세기 박물관과 교육자료의 활용」, 『박물관학보』6(2003), p.57에서 재인용.

time learning 환경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습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⁵⁷⁾을 웹사이트에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당하기 쉬운 장애인과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박물관교육은 박물관과 박물관자료, 박물관 이용자를 매개로 독창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앞으로 박물관교육은 EBS의 다양한 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과 주문형 DMB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 또는 관외 연계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이 더욱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박물관교육은 다목적 다차원 다종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물관교육전문가와 표적 참가자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표적 참가자들의 참여와 체험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박물관을 매개로 박물관교육전문가와 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 따라서 공동 또는 협력을 통해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교사들 또한 방과후 평생교육기관 연계 및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교육전문가 또한 주 5일제로 밀려드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연계 및 관외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박물관교육전문가와 학교 교사들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기능을 바꿔 실행해 봄으로써 박물관 또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상호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 역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후세들에게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수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판단한다. 경제적으로 앞선 선진 박물관의 비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박물관의 비영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박물관교육은 교류 측면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박물관교육은 다목적 다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물관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 양자 또는 다자간 연계망에 조화와 균형을

57) <http://www.museum.go.kr/eye/main.html> (검색일 2017.9.30.)

이루어야 한다. 다문화 전수의 형평성과 학제간 접근의 수월성을 충족시킬 때, 박물관교육의 활성화는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은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비정규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성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박물관교육 전문가들은 공동체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고,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관외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을 다목적 그리고 다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학제간 또는 다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 평가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박물관교육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은 생태교육과 대칭적 위상을 갖고 있고,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의 관계를 문화를 매개체로 연계하는 박물관교육의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한 분야로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 가는 인문사회교육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문화교육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에 관한 유무형의 자료와 정보에 관한 총체적 교육이다. 질적 성장을 위한 박물관교육의 방법론은 공동체 성원들이 그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계문사, 2006.
- 국사편찬위원회, 『수신사기록修信使記錄』 전초, 탐구당, 1971.
- 국성하, 「한국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 『한국박물관교육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4.
- 김갑천 역, 「박영효의 建白書 -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 상소문-」, 『한국정치연구』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0.
- 김권구,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의 과제」, 『박물관과 박물관교육』, 한국박물관교육학회, 2003.
- 김은정, 「21세기 박물관과 교육자료의 활용」, 『박물관학보』 6, 한국박물관학회, 2003.
- 김한중, 「문화재교육의 개념 및 성격」, 『초·중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2006.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시인 학교」(1926.10. 인도의 전망에서 재생산), 『계간 위스와 바라티(Journal of Visva-Bharati)』, 문화적 관계를 위한 인도 협의회, 1981.
- 박선기, 「여가의 개념」, 『여가학 총론』, 레인보우북스, 2008.
- 서명애,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학교예술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 아마레스와르 갈라, 「진정성: 다원적 틀에서 유산 다양성을 다시 생각하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Nara) 의정서』, 유네스코, 1995.
- Amareswar Galla; 최종호 역, 「아시아 태평양 관점에서 유산 전문가를 위한 포괄적 역량 배양(Inclusive Capacity Building for Heritage Professionals Perspectives from the Pacific Asia)」,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민속원, 2009.
-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 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 서해문집, 2004.
- 이문원, 「포럼 중계: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기능」, 『월간 너울』 1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申瓚均, 「박물관과 새 문화정책」, 『박물관신문』 119호, 국립중앙박물관, 1981.
- 전경수, 「한국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인류학의 회고와 전망』, 집문당, 1998.
- 정준호, 「중국의 문화유산교육」, 『한국사 교육과 문화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11.
- 조한희, 「미국박물관협회와 상임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학보』 6, 한국박물관학회, 2003.
- 최광식, 「한국 박물관 100년의 역사와 의미」, 『한국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권력』, 서경문화사, 1999.
- ,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경문화사, 2001.
-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 최종호, 『오늘은 민속관 가는 날』, 재능출판사, 1998.

- , 「한국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서울역사박물관, 2003.
- , 「박물관 교육과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 지침(2)』,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4.
- , 「박물관학에서 바라보는 문화교육」, 『문화예술 교육연구』1(1), 문화교육학회, 2006.
- , 「한국 박물관 100년과 박물관 경쟁력 강화 - 근대이전의 박물관 단계, 여명기, 혼란기의 박물관 발달사, 박물관 경쟁력-」, 『박물관학보』 14 · 15, 한국박물관학회, 2004.
- ,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철학」,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 , 「박물관 에듀케이터의 다문화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연구』 6(1), 한국문화교육학회, 2011.
- , 「문화재교육의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보』 21, 한국박물관학회, 2011.
- , 「개화기부터 1910년까지 뮤지엄과 엑스포 정책 연구」, 『박물관학보』 22, 한국박물관학회, 2012.
- , 「박물관교육 성과분석과 질적 성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 적용」, 『2017년도 국립박물관 사회교육 담당직원 워크숍』, 국립중앙박물관, 2017.
-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89.

梅棹忠夫, 『博物館と美術館』, 中央公論社, 1981.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報』1, 1926.

- Falk, J. H. and Dierking, L.D. (1992) *The Museum Experience*, Washington, D.C.: Whales Books.
- Hein, G. E. (1998) *Learning in the Museum*, London: Routledge.
- Hooper-Greenhill, Eilean (1991) *Museum and Gallery Education*,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 Hooper-Greenhill, Eilean (1991)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Museum education from 1970s to 1990s*, GEM 12, Nottingham: GEM.
- Hooper-Greenhill, Eilean (1994) *Museums and Their Visitors*, London, Routledge.
- Hooper-Greenhill, Eilean (eds) (1999)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2nd, London: Routledge.
- Wright, Charles, R. (1960) *Functional Analysis and Mass Communication*, POQ, 24, 9.9. 605-62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33&gunchalId=&NodeId=&setid=1277693,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deutsches-museum.de/e_index.htm,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getty.edu/education/index.html>,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kcti.re.kr/web_main.dmw?method=view&contentSeq=2561,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eadmin&ID=00851>,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eadmin&ID=03751>,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eadmin&ID=08565>,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museum.go.kr/eye/main.html>,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museumoflondon.org.uk/MOLsite/learning>,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smithsonianeducation.org>, accessed 30 September 2017.

<http://www.thebritishmuseum.ac.uk/education/index.html>, accessed 30 September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Korea's Museum Edu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Museum Education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Jongho Cho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lore the history of Korea's museum education, the achievement analysis and the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the suggestion of teaching-learning programming model, and the assignment and orientation of the museum education in the future. The origin of Korea's museum education was to promote the social education based on the enlightenment to broaden one's experience and knowledge to share one's enjoyment together and the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opening for the knowledge development.

The criteria orientation of museum education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tent orientation, the objective orientation, and area orientation, and achievement analysis of museum education can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mission statement of the museum and the target of the museum based on the standard of measurement of the conformity and orientation of museum education. The customer-adjusted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the ADDIEF Teaching-Learning Programming Model is expected to increase 1) accessibility, 2) accountability, and 3) advocacy, and also to open a short cut to practise the principle of 1) excellence, and 2) equity.

Thus, the methodology of the museum education for qualitative development should focus on the application of customer-adjusted teaching-learning program so that community members transmit their traditions and learn how they to live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Keywords: Museum Education, Qualitative Development, Achievement Analysis, Evaluation Methodology, Teaching-Learning Programming Model